

# 지역경제권 내의 국립연합대학원 운영모델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최재원**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부학장 **김수형**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해준**  
부산대학교 기획처 사무관 **황영숙**  
부산대학교 기획부처장 **박상후**

## 1. 연합대학 및 연합대학원 체제의 필요성

198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화된 세계화, 시장화 및 지식정보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로 세계시장은 자본, 상품, 사람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활발하게 이동하고 자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 역량이 국가나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거대경쟁(mega-competition)’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이 수행하는 교육연구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극단적으로 커지고 학문의 질적 보장과 대학의 국제경쟁력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논의에 고등교육시장의 비관세장벽 문제가 포함되고 교육서비스가 주요 수출상품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국가마다 자국 대학의 교육연구 위상과 경쟁력을 예

의주시하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에서 서로 무한 경쟁하는 체계로 바뀔에 따라 국가의 위상과 국가의 물질적 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토대이자 추진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저마다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제3자가 세계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다양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개발하여 순위를 매기는 이른바 미국식 시장 경쟁형 평가가 등장하여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개인중심 학문연구에서 목적달성형의 학문연구로 변화하고, 여기에 더해 사회의 학문적 요구, 학제적 분야 복합영역에 대한 관심고조 등 교육연구의 질적인 변화도 가세하여, 마치 매트릭스 구조와 같이 교직원의 결합관계가 다양해지고 캠퍼스의 멀티화 혹은 네트워크화가 진전된 ‘유연한 조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지역 거점국립대와 중소 국립대가 통합하거나 대기업이 직접 대학을 운영하여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조직 구조가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만 1980년대 이후 16건 이상의 대학이 통폐합과 재편을 통해 연합형 대학을 탄생시키고 있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에서 1990년대에 들어 이원적 고등교육시스템의 평준화, 거점대학 창출을 통한 대학의 교육연구기능 강화 및 재정효율화를 위해 연합형 대학 설립에 전면적으로 동참 중에 있다. 여기에 더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헝가리, 일본, 중국 등을 위시한 세계 도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화를 위해 교육대학의 종합대학으로의 통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세계의 대학조직은 복잡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단일 캠퍼스에서 멀티·네트워크 캠퍼스로, 독립된 기관에서 상호 연합한 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 및 일본에 뒤이어 사회구성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여 2018년도 이후에는 고교졸업자 수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대학 학과의 통폐합, 유망학과 신설 등 대학구조조정과 특성화 분야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학마다 자체 구조조정뿐 아니라 지역의 특화산업 중심으로 대학간 연합 또는 연계를 통한 특성화 및 구조조정 또한 새로운 변화의 시도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CK-I 및 CK-II 사업을 통하여 지역대학과 수도권대학의 특성화를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그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모델 개발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국립대의 특성화 분야들을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연합대학원 모델은 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연합대학 모델연구

### 연구사례 분석

연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원에 대한 모델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향철(2009)은 한국의 연합대학 구상은 국립대학 법인화로 상징되는 설치형태 및 관리운영체제 개혁에 그치지 않고 개별 대학의 지역적 배치와 교육기회 보장, 유형별·종류별 편제, 교육연구·행정조직의 미분화라는 한국 국립대학체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일본처럼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목적을 중심으로 복수의 대학이 하나의 연합대학을 구성하여 중복된 교육연구조직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법인으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국립대학이 참여하여 세계화, 시장화, 대중화, 지식정보화라는 고등 교육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지배구조개혁과 교육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연합대학을 3~5년을 단위로 하여 사전준비(예비개혁), 연합대학 공동운영위원회 결성, 설치형태 개혁(법인화)이라는 3단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대학 상호간에 학점교환, 원격수업, 교양학부 및 대학원 수업통합 등 교육연구협력이나 공동추진사업을 모색하면서 참여 대학 내부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연합대학 추진 합의를 조인해야 한다. 연합대학 공동운영위원회 결성 단계에서는 참가 대학의 총장 및 총장사무국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권한을 초월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연합대학추진협의회 및 관련 소위원회를 두고 연합대학 관리운영체제, 중복조직의 통폐합, 내부조직 정비, 중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연합대학 법인화 단계에서는 법인으로 설치 형태를 개혁하여 연합이사회, 감사, 각종 심의회, 총장 및 총장사무국을 두고 기존의 대학은 연합대학의 캠퍼스로 부총장을 두고 운영한다. 각 캠퍼스별로 연합대학의 유사한 교육연구조직을 통폐합하고 전략적으로 조직을 수립하여 특성화하며 부총장 및 부총장 사무국 아래 고도의 자율성을 갖는 네트워크형 캠퍼스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재중·이병민(2005)은 연합대학원 모델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후 과학기술연합대학원, UST)의 설립 목적, 기본운영체제 등을 분석하고, 특히 일본의 종합연구대학원(SOKENDAI)의 현황과 운영체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UST의 향후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은 2002년 12월 의원입법으로 정부출연(연)법을 개정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한 후 2003년 10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이공계 전문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되었다.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과학기술계 22개 출연연구기관이 연합하여 1개의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동부설형태로, 설립연구기관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의 교

## 이슈진단 및 분석

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기존 대학원교육의 틀에 박힌 학과 개념을 벗어나 전 공만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는 운영체제이며 특히 연구기관별 연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과제를 통해 국가의 전략적인 연구개발 및 산업계의 수요에 즉각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전공 위주로 전공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재천 등(2010)은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연합대학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의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연합대학의 모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정부가 제시한 동일권역 내 2개 이상의 국·공립 대학이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의 통·폐합 및 대학간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5년 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하여 연합대학 운영 방안, 법인 운영 방안, 행·재정 지원 방안 등을 기술하였다.

### 해외 연합대학 및 연합대학원 운영사례

일본은 국립대학 법인화를 앞둔 2001년 6월 12일 ‘도야마 플랜’으로 불리는 ‘대학의 구조개혁 방침’이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추진 중이던 국립대학의 관리운영체제 및 설치형태 개혁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학의 재편·통합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일본대학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교육대학 등 규모의 축소·재편, 지방이관(공립화)의 검토, ② 단과대학(의과대학 등)의 다른 대학과의 통합이나 지방이관, ③ 광역자치체의 영역을 넘어선 대학·학부의 재편·통합 등 개별대학이나 학문분야별 상황을 바탕으로 대학을 ‘통폐합’하여 특히 국립대학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한 민간경영방식의 도입, 대학평가의 의사시장 도입에 의한 대학의 경쟁, 연구예산의 차별적·중점적인 배분에 의한 세계 최고수준 연구거점(COE, Center of Excellence)의 창출과 아울러 국립대학의 재편통합을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참여 대학 스스로 유사·중복 교육연구조직의 통폐합, 시설설비 및 공간 활용의 효율화, 교육과정의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 법인화를 매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거점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과감하게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본대학의 통폐합 및 재편은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립대학 법인화에 자극을 받은 학교법인(사립대학)도 생존차원에서 흡수·합병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개혁이 전개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① 특별목적 대학끼리의 통폐합을 통한 특별목적대학 역할유지 유형: 연합의과대학 구상(국립대, 미구성), 도쿄상선대학+도쿄수산대학=도쿄해양대학(국립대, 2003), ② 종합대학과 특수목적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일반종합대학 유형: 츠크바대학+도서관정보대학=츠크바대학(국립대, 2002), 고베대학+고베상선대학=고베대학(2003), 오사카대학+오사카외국어대학(국립대, 2007), ③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재정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거점대학과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일반종합대학화 유형: 아마나시대학+아마나시의과대학=아마나시대학(국립대, 2002), 사가대

학+사가의과대학=사가대학(국립대, 2003), ④ 광역자치체 내부의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망라 유형: 고베상과대학+히메지공업대학+효고현립간호대학=효고현립대학(공립대, 2004), 도쿄도립대학+도쿄도립과학기술대학+도쿄단기대학+도쿄도립보건과학대학=수도대학도쿄(공립대, 2005), ⑤ 개별 대학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학점교환, 복합영역과정 운영, 교수 교환, 편입학까지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연합대학 유형: 도쿄의과치과대학+도쿄외국어대학+도쿄농공대학+히토츠바시대학=도쿄 4대학 연합(국립대, 2001), 아이치교육대학+기후대학+시즈오카대학+토요하시기술과학대학+나고야대학+나고야공업대학+하마마츠외과대학+미에대학=동해지구 8개 국립대학 연합(국립대, 2002), ⑥ 기타 지역컨소시엄 대학: 우츠노미야센다이컨소시엄대학, 세다야 6대학컨소시엄, 대학컨소시엄오사카 등이 있다.

일본 연합대학/대학원의 운영체제를 도쿄와 나라현 연합대학 사례로 살펴보자. 2001년 3월 히토츠바시대학, 도쿄공업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도쿄외국어대학은 도쿄 4대학연합을 결성했는데, 연합목적은 ‘도쿄 4대학연합 현장’에서 첫째, 학생들에게 학점이수나 진학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둘째, 공동연구 프로젝트나 학제적 연구 영역에서 협력을 하며, 셋째 해외 대학과 제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대학은 모든 복합영역분야에 취약한 특징을 갖는 단과대학의 성격을 갖고 있어 연합대학 구상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즉, 하나의 대학으로 제공할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2대학 또는 3대학이 상호 제공하기 위해 ‘복합영역과정’을 설정하고 상호 편입학을 인정하고 복수의 학위취득을 공동사업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네 대학은 [그림 1]과 같이 그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각각 의지학, 이공학, 외국어학, 법학·사회학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각 대학의 장점을 살려 두 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하여 ‘복합영역과정(협동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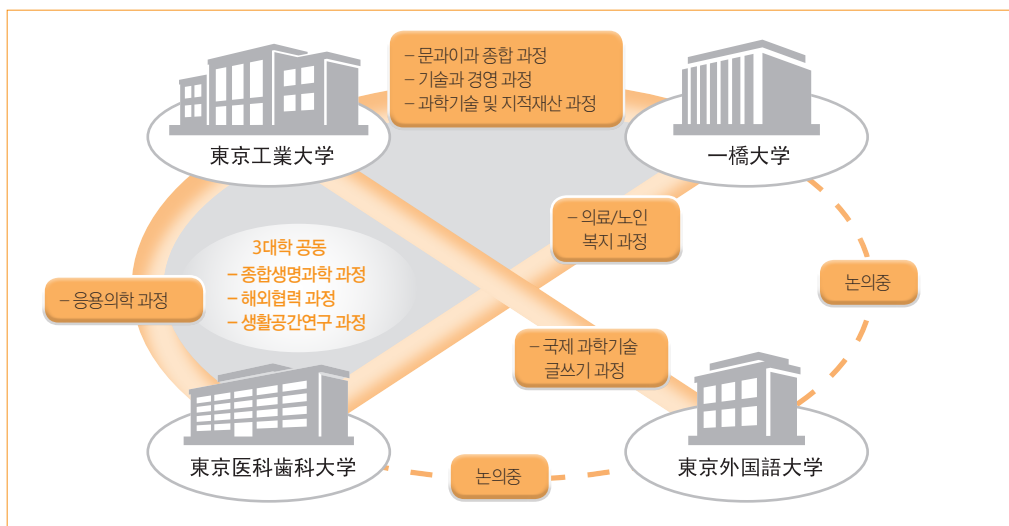


그림 1 | 도쿄 4대학 연합대학 운영체계

## 이슈진단 및 분석

또 다른 운영체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사례를 살펴보자. 1960년대 당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주립대학이 30여개에 달했으나 이들 대학간에 상호조정이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립대학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급증하는 이민자들의 보편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욱 확대할 목적으로 연합대학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의 초대 총장이었던 Clark Kerr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59년 12월 ‘고등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대학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마스터플랜’의 내용은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그 특징은 시스템별 별도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즉, 연구, 교육, 평생·직업교육이라는 3개 계층의 특성화된 대학 체계를 설계하고, 대학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UC(University of California)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는 교육 중심대학으로,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는 평생·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각각 특성화 방향을 설정했다. 다시 말하여 참여대학간 자기역할(self-positioning)을 하도록 하여 상호간 시너지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각 대학별 중심사명과 구성체제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체계에서 특성화된 역할분담

구분	캘리포니아 대학 (UC계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CSU계열)	캘리포니아 초급대학 (CCC계열)
사명	- 연구·혁신 - 박사과정 중심 - 전문직업교육(의치법학 등)	- 응용연구, 실용학문 - 학석사과정 중심	- 2년의 학부교육 - 성인대상의 직업·평생교육
입학자 결정기준	(고등학교 성적) 상위 12.5%	(고등학교 성적) 상위 33.3%	
대학 수	10	23	110

또한, 연합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해 ‘연합이사회’를 설치하고, 연합대학 교육정책을 다루는 ‘학사평의회’를 설치하고, 연합대학 총장과 캠퍼스 총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 모든 주립대학들은 대학들 간의 역할분담 및 연합체제 구축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유지하고, 아울러 주의 성장의 동력원으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대학의 통합 또는 재편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마르틴과 사무엘스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 축소기의 매니저먼트’로서 ① 규모의 확대, ② 캠퍼스시스템(캘리포니아대학시스템 등), ③ 컨소시엄, ④ 통합으로 이루는 과정을 설정하고 통합을 통한 연합대학 구성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개별대학이 따로 존재하면서 경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연합을 결성하여 협동하여 다양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살아남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연합대학은 개별대학의 존립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제휴와 지역배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등교육 전체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통합이 상호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공유한 공동계획의 수립, 캠퍼스자원의 공동이용, 정규적인 학술활동의 공동화를 핵심개념으로 들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연합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의와 시간적 여유를 가진 계획입안, 추진을 이끌어갈 인적 요소가 중요하며, 통합이 충분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교직원의 모럴저하와 스트레스 증가라는 결과를 낳게 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연합대학 또는 대학원 구성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 3. 한국형 국립연합대학원 운영모델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대학 대비 사립대학의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국립-사립대 간의 연합모델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국립대학간 또는 사립대간의 연합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경제권 중심의 연합대학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학지원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그림 2]와 같이 단계적으로 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개념을 살펴보면, 국립연합대학원 독립공간(대학원건물+정주공간)과 연합대학별 지역캠퍼스에 로컬공간을 조성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개 이상의 연합대학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성화 및 융합과학기술 분야의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출연(연), 지역기업 등의 전문가를 국립연합대학원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며, 프로젝트 Lab.의 운영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가 우수 대학원생과 연구팀을 구성하여 현장중심 공학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비즈니스 Lab.의 운영을 통해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이 산·학·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신기술 및 신시장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산실로 운영하여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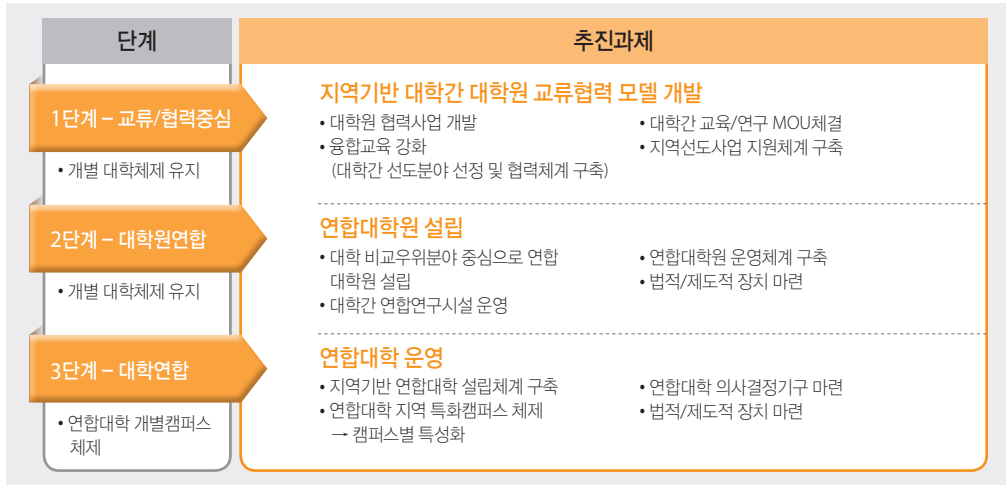


그림 2 | 지역경제권 내 국립대학간 단계적 연합대학원, 연합대학 운영 전략

멀티캠퍼스 기반으로 구성된 국립연합대학원 운영방식은 대내외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출된 대학원장 및 참여대학들에서 선출한 1~2명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운영협의체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도록 하여 참여대학간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매년 참여대학별 국립연합대학원의 활성화에 기여도를 평가하여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학에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내부적으로도 발전적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특별법 기반 지속적인 시설운영 및 연구비 지원, 전국 및 동남권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기업의 국립연합대학원 운영비 지원 및 연구프로그램 지원으로 분리 운영), 참여대학들의 지속적인 발전기금 및 로컬캠퍼스 공간 투자, 산·학·연 공동연구팀의 국책연구사업 수주 노력, 특허대여 및 기술이전비 일부 적립 등의 시설유지비 및 연구비 확보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립연합대학원의 창의적 융합 공동연구를 지원 및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지역 정부출연(연)의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재배치하고 지역기업의 연구소 분원 혹은 연구센터 등을 국립연합대학원내에 유치하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 및 상생 모델을 확립 하면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 및 지역기업의 참여의 경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운영하도록 한다(예: (i) 일반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연구소 혹은 기업은 연합대학원 독립건물 혹은 로컬캠퍼스건물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기본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 국립연합대학원에서는 참여 연구소 및 기업들에 내·외부적으로 개최하는 학회, 세미나 및 특별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에 대해 졸업 후 참여 연구소 및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선기회를 제공함; (ii) 특별연구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연구소 혹은 기업이 성실실패를 허용하는 목적성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도출된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목적성 연구를 통해 생성되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은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소 혹은 기업이 특허권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추후 기술실행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연구결과가 실효성을 거두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함).

국립연합대학원의 차별화된 연구중심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Lab. 및 비즈니스 Lab.을 운영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Lab.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 가능하다. (i)외부투자 기반 프로젝트 Lab.: 외부의 정부 연구사업수주, 연구소 및 기업 목적성 연구비 투자 등을 기반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ii)국립연합대학원 내의 자체 지원 프로젝트 Lab.: 국립연합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특정한 연구주제 등에 대해 내부적인 연합 연구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연구하는 프로그램 형태이다. 연합대학소속 지도교수, 기업체 및 연구소 전문가 부지도교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4~5명 이내의 프로젝트 Lab. 연구팀을 구성하고, 매년 연구팀을 엄격한 평가과정을 통해 공모 및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팀에게는 연합대학원 독립건물 내에 교수연구실, 대학원생오피스, 회의실, 연구실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중심 및 특성화 분야 창의적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Lab.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매년 연구결과물(정성평가: 연구결과의 독창성, 우수성, 융합성, 미래지향성 등, 정량평가: 논문, 특허, 기술이전, 연구비수주 등)의 평가를 통해 연구공간 및 재정 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비즈니스 Lab.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다. 연합 대학 내의 대학원생 중심의 소규모 개별 연구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신기술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공동연구주제를 이끌어 내도록 일정기간 지원하고, 이후 산·학·연 공동연구팀 구성을 완성하고 비즈니스 Lab. 운영을 시작하도록 한다. 대학원생 1~3명 및 산·학·연 전문가 2인 이상을 멘토로 지정 구성한 비즈니스 Lab.을 구성하고 신기술 및 신시장 모델 공모를 통해 매년 수개 팀을 선정하여 연합대학원 건물 내 창업형 연구실 공간 제공 및 일정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 매년 연구결과물(특허/기술이전/연구비수주 등)의 실적평가를 통해 연구공간 및 재정 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비즈니스 Lab.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된 벤처회사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국립연합대학원에서 상설화된 산·학·연전문가 중심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이들을 통해 분사된 벤처회사들 간의 상호협력 및 상호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기업 성장 및 협력을 유도한다.

#### 4. 맺음글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본격적인 대학구조조정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학운영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산업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일대학 중심의 백화점식 학과운영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실질적인 특성화를 추구하며 세계수준의 고급 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개념의 대학 및 대학원 운영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중심의 인력양성 및

## 이슈진단 및 분석

공급체계를 벗어나서 대학-출연(연)-기업연구소-지자체가 연결된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협력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 고에서 제안하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국립연합대학원 모델은 정부의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각 대학별 기능부여와 특성화 분야의 상호 시너지를 통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인력 배출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문헌]

1. 하연섭,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2호, pp. 1~29, 2013.
2. 장재중, 이병민, '연합대학원 모델의 사례 비교분석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8권, pp. 555~582, 2005.
3. 서재천, 서강식, 조봉환, 지옥화, 장원순, '연합대학으로의 대학 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 공주교대논집, 제47권, 1호, pp. 87~118, 2010.
4. 김정흠, 장재중, 이병민, 김갑수, 이규호, 이종욱, 오재건, '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 설립운영 방안',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11권, pp. 149~168, 2002

## 필자소개

### 최재원 |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학사(1987), 석사(1989), 박사학위(1995) 취득.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Visiting Scholar, MIT 및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각각 Visiting Professor 역임. 1996년 이래로 부산대 기계공학부에서 교수.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부산대 공과대학 교무부 학장, 2006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부산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센터장 역임.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교육인증지원센터 설립 및 초대 센터장 역임. 2013년 3월부터 부산대 기획처장 재임 중. KSME International Journal 및 IEEE Control Systems Society Conference Editorial Board에서 Associate Editor 및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에서 Editor 역임. 제10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2000년 5월), 제35회 과학의 날 과학기술진흥유공포상 국무총리 표창(2002년 4월),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고명삼학술상(2008년 10월), 부산대 산학협동상(2009년 2월), 공학교육혁신유공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2009년 11월) 수상. 주요 관심 분야는 선형시변시스템이론, 표적추적필터 설계, 센서정보융합 및 공학교육혁신방법론 등이다.

### 김수형 | 부산대학교 나노기술대학 부학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1997),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석사(1999), 미네소타대 기계공학과 박사학위(2003)를 취득하였다. 2006년부터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교내 IGB-PNU 연구소 소장 및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미래부 민군기술협력사업 멀티스케일 에너지텍스 연구단 단장을 역임 중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학회, 미국에너지저장학회, 미국재료학회의 정회원이며, 한국입자에너지저장학회(KAPAR)에서는 편집위원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가능성 나노구조체 합성 및 물리/화학특성 측정분석, 나노에너지텍스, 에너지소재 및 소자, 나노유체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70여 편의 국내외 학술논문, 10여 건의 국내외 특허 등이 있다.

### 이해준 |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학사), 포항공과대학 물리학과 대학원(석사, 박사)을 졸업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전기연구원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황영숙 | 부산대학교 기획처 사무관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였다. 2006년부터 교육부 학술진흥과, 대학정책과, 산학협력과 등을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대학교 기획평가과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 박상후 | 부산대학교 기획부처장

부산대학교 생산기계공학과(학사), KAIST 기계공학과 대학원(석사, 박사)을 졸업하였다. 2007년부터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국 Oxford대학 교환교수(2012), 한국기술사협회, 한국정밀공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설비공학회 정회원이며,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Manufacturing-Green Technology와 Journal of Materials의 Editorial board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기계기공, 나노공정, 3D프린팅기술개발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100여 편의 국내외 학술논문, 49건의 국내외 특허, 그리고 기계설계 등 3권의 저술이 있다.